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경선 후보 미디어데이가 열린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후보 4명이 기호를 추첨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호 1번 박성훈, 2번 이언주, 3번 박민식, 4번 박형준 후보. /뉴시스

서울·부산 후보 확정 4·7 경선레이스 돌입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여야가 본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확정하면서다. 이와 함께 여야 모두 다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 작업도 시작했다. 보궐선거까지 두 달 앞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야가 선거전에 뛰어들어 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박영선·우상호(이하 가나다 순),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김영춘·박인영·변성완 후보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후보가, 부산시장 후보 경선은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후보가 나선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부산시장 경선 후보 심사를 마무리했다. 경선에 출마할 후보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공천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 이후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유권자 투표 50%'가 적용된 국민 참여 경선으로 최종 후보를 정한다.

민주당, 서울후보 박영선·우상호 부산후보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서울 나경원 등 총 4명 부산 박성훈·이언주 등 4명 출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도 지난 5일 '여론조사 80%, 책임당원 투표 20%' 결과 합산으로 모두 8명의 서울·부산시장 본 경선에 출마할 후보를 정했다. 이어 7일 오후 부산시장 본 경선 기호 추첨도 진행해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기호 추첨은 오는 8일 진행된다.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는 100% 시민 여론조사로 오는 3월 4일 결정하기로 했다.

반면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정의당이 후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서다. 정의당은 지난 3일 제6기 5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궐선거 후보 공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하기로 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정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왼쪽)와 정봉주 열린민주당 예비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의 몰염치, 무책임한 구태 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정의당에 있고 보다 근본적 방법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후보 공천 포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정당은 선거에서 유권자 평가와 선택 통해 자신의 정당성 인정받고 정치적 시민권을 인정받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고통스럽고 뼈아픈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논의도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정봉주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7일 '양당 통합'을 전제로 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문에서 이들은 "양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고, 정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 절차를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선거 전 통합을 추진하되, 어려울 경우 통합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도 같은 날 두 후보가 발표한 합의문에 "이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레이스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무소속 금태섭 후보와 '제3지대' 단일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7일 첫 실무진 회동을 갖고 후보 단일화 관련 토론·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 "우리나라 단일화 과정을 보면 큰 당에 뿌리를 가진 당의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 상례였다"며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건설자재 H형강 표준치수 95종으로 확대

국표원, 오늘 표준개정안 고시
대형 8종, 400mm급 5종 등 추가

국가기술표준원은 건축비용 절감과 철강수요 확대를 위해 건설 현장의 핵심자재인 H형강 표준치수를 82종에서 9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을 8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H형강은 2020년 기준 국내 연간 생산량 약 320만톤, 시장규모 약 2조4000억원의 건축구조용 핵심 철강자재다. 중소형 치수에 비해 표준치수가 부족했던 대형 치수 8종이 추가되고 활용도가 높은 400mm급 치수가 5종 추

가된다.

이번 H형강 표준치수 확대로 건설업계는 건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치수가 확대되면, 다양한 규격의 H형강을 적절히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최적 설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간 설계에 반영하려는 H형강이 KS 표준치수가 아닌 경우 가장 근접한 상위 규격의 KS 표준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대형 치수 확대는 초고층화,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건축산업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표준치수 확대로 설계 비효율에 따른 경제성 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이번 표준개정이 건축구조용 시장에서 H형강 수요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표원은 제품 생산 가능성과 수요자 활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표준치수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차례 전문가 검토회의와 업계 설명회를 열고, 한국철강협회 주관으로 철강업체 간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쳐 표준치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산업표준 금속기술심의회 의결로 확정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토익스피킹 영어 말하기에 도전하세요”

산업인력공, 내달 7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과 ETS코리아, YBM은 '월드잡플러스 X 토익스피킹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2월8일~3월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월드잡플러스에 가입하고 유효한 토익스피킹 점수를 보유한 만 18세~34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의 청년은 누구나 대회에 참가 가능하며, 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자는 개인이나 팀(2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뉴노멀 시대의 글로벌

경력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주제로 3분 이내 발표 영상과 영문원고를 접수 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ETS 코리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부문별로 우수자 7명과 우수팀 7팀을 선정해 대상(1명, 1팀) 200만원, 최우수상(1명, 1팀) 150만원, 우수상(2명, 2팀) 100만원, 장려상(3명, 3팀) 50만원의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영상구성 방법, 심사기준 등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 공지 사항 또는 대회 접수페이지(www.wor

ldjob.or.kr/tosconte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300개 사업장에 클린팩토리 구축 추진

산업부, 올 예산 203억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그린뉴딜 지원을 위한 '산내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사업(클린팩토리 구축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올해 203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개 사업장에 대해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이 사업 예산은 31억원으로 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었다.

클린팩토리 구축사업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4대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친환경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평균 6000만원(최대 1억2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농식품부, 총 123팀 선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4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가공뿐 아니라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플랫폼 서비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이며, 예비창업자 40팀과 창업기업 83개소를 선발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자금과 함께 주요 권역에 위치해 농식품 분야 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식품벤처창업센터의 집

중 지원을 받는다.

예비 창업자는 선발 당해에 한해 700만원, 창업기업은 연간 2100만원씩 최대 5년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또 농식품벤처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1대 1 밀착 상담, 수준별·분야별 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 창업 관련 종합 지원도 받는다.

선발 과정에서 서류 심사는 지원요건과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발표평가에서는 기술 역량, 사업 모델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평가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점수를 일정비율로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는 4월 초 개별 통지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바이든 美 행정부

日·호주·인도와 온라인 정상회담

바이든 미 행정부가 일본, 호주, 인도와 4개국(쿼드) 정상 간 온라인 회담 개최를 협의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미·일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쿼드 정상회담은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피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첫 정상회담이 된다. 4개국 외무장관들은 2019년 9월 뉴욕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0월에는 도쿄에서 2번째 회의를 가졌고 외무장관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고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든의 새 미 행정부는 또 중국에 맞서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같은 근본 가치를 공유하는 4개국 간 틀을 강조한다. 지난 1월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통화에서도 4개국 간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홍콩과 신장 등 중국의 인권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의 대응 방안 등이 주요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